

장난감 세상
(인형극단 자몽과 일곱 오렌지)

【서식 4】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

프로그램명	장난감 세상(인형극단 자몽과 일곱 오렌지)			
<p>1. 프로그램 추진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는 도시형 대안학교로 학교 뒤에는 산 가까이 위치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총 학생수 초등생 30명 내외로 1학년, 2~6학년 통합 학급 3개를 운영(2023년 기준)하였다. 학급당 학생수가 5~8명 소규모이다. 소규모 학습 특성 상 아이들 관계 구도가 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본교의 경우 매해 자신이 가고 싶은 반을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수업 과정 속에서 역할 나눔과 서로의 모습을 모델링하며 성장해간다. 더불어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반으로 구성되어 다양성과 다름을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알아가며 서로 배움의 과정을 가져간다. ‘장난감 세상’ 반의 경우, 3학년 2명, 4학년 1명, 5학년 3명, 6학년 1명(특수교육대상 아동 1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양부모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안학교의 특성상 부모의 역할이 많으며 다양한 일정에 부모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 매해 각 반마다 교사가 큰 주제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주제 가지뻐기를 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본교의 프로젝트 수업은 각 주제별로 단기간 성과물을 내는 작업과 다르게 ‘살림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칭하며 옷, 집, 밥이라는 각 반의 대주제 속에서 교사가 정한 중주제로 한해를 생활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중주제와 관련하여 작은 주제를 찾아 배움의 과정을 가진다. 살림 수업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배움을 지향하는 배움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지역 속에서 배움을 찾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본교의 옷살림은 2023년 ‘장난감 세상’이라는 중주제로 한해를 열었다. ‘장난감 세상’이라는 주제로 한 까닭은 어린 시절을 함께 하는 장난감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주제 속에서 놀이, 연극, 미니어처 등 상상력을 뽐낼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였다. - 장난감 세상 반 아이들은 장난감 중 인형에 주목하여 필요한 기초기술을 교사와 공부하고 더 필요한 기초기술(바느질 등)을 배우기 위하여 학교가 위치한 지역 인근의 공방을 직접 연락하여 찾아가 배웠다. 그리고 인형을 활용한 연극을 하기 위해 교사와 인형극을 공부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인형극단에 연락하여 배움을 요청하여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배움을 나눈다는 본교의 교육철학에 맞게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인형극을 마을 잔치에 보이고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과 소통하여 연극공연을 다니는 등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를 한 바 있다. 				

2. 프로그램 사례

□ 프로그램 명: 장난감 세상(인형극단 자몽과 일곱 오렌지)

가.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목표

- (1) 장난감 세상 속에서 스스로 배움의 계획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해낸다.
- (2) 활동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활용한다.
- (3) 활동 속에서 문제상황을 수용하고 해결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 (4) 배움의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

- 참여학생 수: 7명

- 운영 기간: 24.02~24.12(10개월)

- 예산 집행액(필히 작성)

항 목	산출내역	총 계
수업재료비	나무 구입	758,000원
	인형 천, 솜 구입	
여행(살림여행)	숙소 560,000	1,258,000원
	교통 98,000	
	활동(극단 배움) 350,000	
	식재료 및 간식 250,000	
	간식비	
합 계		2016000원

나.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준비

구 분	내 용
반 경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해를 보낼 반을 선택하기 위해 반 주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루 반에서 생활하며 주제 경험하기 - '장난감 세상'은 1~3교시에 종이, 천, 실 등 다양한 재료로 나만의 인형 만들기/4교시에 작은 상자 안을 꾸미고 자신이 만든 인형을 놓아두고 우리 세상의 이야기 만들기로 진행
반 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동안 하루씩 각 반을 경험하고 살림반 지망서에 반 이름과 까닭 쓰기 - 살림반 결정되면 하루 보내기

- 프로그램 진행

구 분	내 용
또래 놀이 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아이들이 서로 관계를 편안하게 맺어가는 목적으로 진행 - 협동심 놀이, 짝을 지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장점·함께할 때 기억하면 좋을 점 등을 찾는 활동을 매주 꾸준히 함
주제망 펼치기 (프로젝트 주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 세상’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펼치는 시간(주제를 그물망-브레인스토밍과 유사-처럼 펼침) - 자유롭게 펼친 주제 속에서 반에서 1년동안 함께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 진행, 아이들의 회의 속에서 넓게 펼쳐진 주제들이 정리되며 1년의 주요 활동 맥락이 정해짐 - ‘장난감 세상’은 인형과 연극을 중심 프로젝트로 해보기로 함
기초기술 익히기 (바느질, 뜨개질,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기초기술(바느질, 뜨개질, 자수)을 교사에게 배우는 시간을 가짐 - 새로운 인형을 꾸준히 만들면서 ‘장난감 세상’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꾸준히 가지고 인형을 만들면서 궁금했던 점, 기술면에서 더 배우고 싶은 점 등을 질문거리를 모음 - 아이들이 학교 인근 지역 인형 공방을 찾아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견학을 다녀옴, 견학을 통해 인형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기술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꾸준함과 성실함 등 태도에 대해서 배움을 얻음 - 기초기술과 인형을 만드는 과정은 매시간 작업일지를 쓰며 기록
살림여행 떠나기 (배움을 찾아 가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여행은 1학기 중반에 가는 4박 5일 여행으로 반 아이들과 교사의 함께 먹고 자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가고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여행이자 반 주제와 관련한 배움을 찾으며 주제 탐구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 수 있도록 구성하는 시기 - 학교 선배들이 춘천에서 인형극 축제를 다녀온 기록을 발견하고 춘천에 대한 지역 특성과 춘천에 위치한 극단에 대해 자료조사 - 저학년과 고학년이 역할을 나누어 자료조사 진행: 고학년이 춘천 인형극제 책자와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으면 저학년이 공책에 받아씀. 고학년은 인형극단에 직접 연락하여 반 소개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전달, 저학년은 극단에 보낼 편지를 쓰고 소통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 - ‘장난감 세상’은 춘천에 위치한 인형극단에서 인형극과 인형극에 쓰이는 인형을 직접 만져보고 간단한 막대인형극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연극 극단에 찾아가 배우와 인터뷰, 연기하는 방법을 배움, 그 과정에서 관심이 인형에서 인형극으로 확장 - 여행에서 배웠던 내용, 매일 쓴 일기와 일지, 추억 등을 정리하여 반 신문 만들고 전교생에게 배부

<p>막대인형극 제작과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에서 확장된 주제를 이어 막대 인형극을 제작하기로 함 - 극단 이름(자몽과 일곱 오렌지)을 결정 -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여 이야기 글과 극본의 차이/각색의 의미와 방법을 공부/매일 아침 발음 연습을 위해 15분씩 책 토박토박 읽기 시간을 가짐 - 전래동화 「제주많은 다섯쌍둥이」를 「제주많은 세쌍둥이」로 각색 - 인형 디자인 모듈과 각색 모듈이 나뉘어 활동이 진행되었고 각 모듈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 의견을 듣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대부분 수업 진행은 아이들이 이끄는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듈과 배역을 역시 아이들 회의를 통해 결정됨 - 인형 디자인 모듈에서 준비한 도안과 각색한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자 막대 인형을 만들 - 완성한 인형으로 대본을 외우며 5차례 연습 진행 -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대안학교, 공동육아, 각종 지역 단체가 함께 모여 즐기는 지역 축제에서 공연 - 공연 후 과정 돌아보기를 하며 일지와 소감 쓰기
<p>찾아가는 인형극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교육철학인 “배워서 나눈다”를 실천하기 위하여 아이들 출신 어린이집과 지역 인근 어린이집·유치원에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기로 함(아이들 회의를 통해 결정) - 교사가 지역 지도와 어린이집·유치원 목록을 준비하여 지도를 보며 위치를 찾아 표시하는 작업 진행 -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에 쓸 나무 극장 만들기 -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편지를 쓰는 모듈, 인형극 홍보 포스터를 만드는 모듈로 구성하여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준비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고, 전화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 23년 9월~11월까지 수도권 어린이집 6곳, 수도권 유치원 1곳, 서울에 위치한 유치원 1곳에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진행 -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후에는 매번 일지(찾아가는 과정, 공연하면서 느낀점과 배운점 등) 기록
<p>창작인형극 ‘금붕어의 진짜 가족 찾기’ 제작과 공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하며 동시에 마지막 인형극 준비 - 아이들의 3시간 가량 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직접 만드는 창작 인형극/직접 만든 탈을 쓰고 하는 연극으로 결정 - 탈을 만들기 위해 교사가 평면과 입체의 차이, 인형 전개도를 알아보는 기초학습 시간 진행 - 종이로 입체 탈을 만들고 이를 도안 삼아 부직포 인형 탈을 만들어감 - 적절한 효과음과 음악을 고르고 연습 진행 - 1년 마무리 잔치에서 부모님과 학생들 앞에서 공연하며 마무리

- 프로그램 마무리

구 분	내 용
인형극 제작과 공연 소감 나누기	- 인형극을 준비하는 때 과정 후에는 늘 작업일지를 쓰며 기록 - 공연 후, 학기 마무리 시간에는 가장 기뻐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함께라서 좋았던 순간, 서로에 대해 알게 된 점, 새롭게 배운 점, 느낌 등을 나누고 글로 씀
1년 반 활동 문집 만들기	- 1년 과정 동안 아이들이 쓴 작업일지와 인형극 도안, 포스터, 소감을 모아 반 문집 제작

다. 프로그램의 특징 및 장점

- 학생 중심의 수업을 통한 주도성과 역할 찾기
 - 교사가 정한 큰 주제 아래, 아이들이 스스로 작은 프로젝트 주제를 결정하고 매주 '흐름짜기' 시간에 시간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배움의 주체가 됨. 이렇게 스스로 정한 주제는 아이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며, 고학년은 모두 이끄미로 흐름을 주도하고 저학년은 관찰과 작은 역할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는 기회를 가짐.
- 도전적인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는 경험
 - 인형극 인형 만들기는 개인 작업이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친구에게 물어보며 공동의 문제로 접근하는 과정을 포함. 예를 들어, 인형극장 나무틀을 만들 때 저학년과 고학년이 섞인 두 모둠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작업함. A 모둠은 나무 작업 경험이 있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B 모둠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로, 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A 모둠에게 도움을 요청함. 이 과정에서 A 모둠은 B 모둠의 질문에 답하며 함께 탐구했고, 일지를 쓸 때는 각자 배운 점을 정리하고 모둠 친구들과 논의하며 공동 학습을 되돌아봄.
-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교과통합 학습
 - 인형극을 만들면서 책 읽기, 극본 작성, 일지 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와 연극 발표, 천과 나무 작업을 통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미술 등 여러 교과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짐. 이 과정은 각 영역의 지식을 분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념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도구로 접근. 예를 들어, 인형을 만들면서 평면 그림을 입체로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 면과 부피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무 극장을 만들기 위해 도면을 그리며 축척, 비율, 길이 단위 등을 익힘.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교과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 향상됨

-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
 - '장난감 세상'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인형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역 인형 공방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연을 맺은 지역사회 단체, 사람을 본교 20주년 잔치에도 초대받는 과정을 포함. 아이들은 다른 지역의 극단을 방문해 인형극을 배우고, 지역 축제에서 공연하며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찾아가 인형극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확장함. 모든 과정은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며, 교사와 학교는 지역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여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아이들은 편지와 전화, 포스터를 만들어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지역과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짐.

라. 운영 인력과 역할 분담(개인이 지원할 경우 제외 가능)

응모자	주요역할
*** (프로그램 운영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프로그램 홍보 - 프로그램 평가

3.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확산 가능성

- '장난감 세상' 운영 이후,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를 홍보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지역 축제와 인형극장을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학교 입학문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이들은 인형극 활동을 통해 연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형극 배우로서의 인식을 갖게 되어 적극성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 아이들의 1년 소감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이라니 아쉽다. 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 마음 맞춰 공연 이어가는 법을 다 배웠는데!”, “공연이 그닥 마음에 들고 실망스러운 공연도 있었지만 동생들이 인형을 만지는 것은 언제나 뿌듯하다...많은 꿀팁을 얻었는데 끝나가는게 조금 아쉽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린이집이다. 내가 졸업한 곳이기 때문이다...뿌듯한 순간은 모든 어린이집 공연이다.” 등의 소감에서 아이들의 활동에서 배운 점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인형극 준비 과정에서 6학년 장애 아동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 대사를 외우거나 연기를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고학년 누나가 방해

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도 불편함을 느끼며 짜증을 표현하자 6학년 아동도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점을 스스로 말하는 시간을 갖고, 이전의 상황을 다시 마주했을 때 서로 응원하며 감정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6학년 아동과 개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제공했다. 통합 환경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서로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협동하는 방법을 찾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 프로그램 운영 사진(분량: 1페이지 내외)



[사진 1] 지역 인형공방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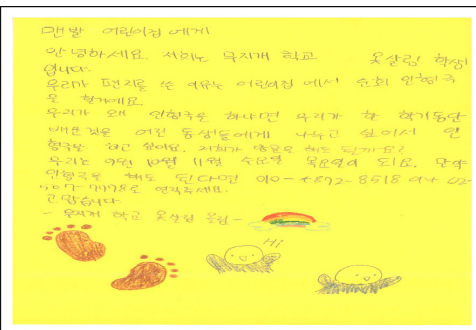
[사진 2] 배움 여행에서 인형극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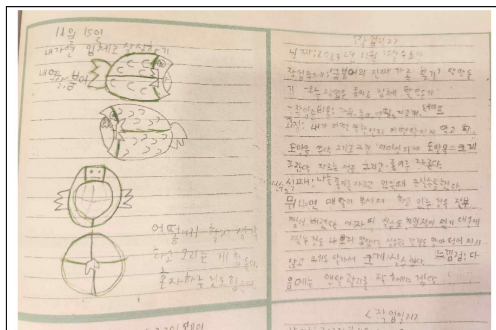
[사진 3] 지역축제 인형극 발표



[사진 4] 찾아가는 어린이집 인형극



[사진 5]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편지



[사진 6] 인형탈 만들기 작업일지 일부